

지역 매 아리



완주군 구이면,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해소

완주군 구이면(면장 송이목)이 활발한 민관협력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23일 구이면에 따르면 복지소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민관협력 사업과 연계해 추진, 실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공적자원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민관협력 및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타계하고 있는 것. 현재 구이면은 10월 기준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민·관협력과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총 12회의 3250만원 사업비를 선정, 지원받아 사례관리 가구의 생계·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지난 21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임차자 금지원사업에 선정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무주택 독거노인가구(구이면, 김○○/65세)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하기도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비만 예방교육 실시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엄마산 영양가득 건강간식 사업인 지역 아동센터 11곳을 대상으로 '소소한 실천! 확실한 변화!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바로알기' 교육을 21일부터 30일까지(8일간)진행한다고 밝혔다.

평소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키와 몸무게를 측정함으로써 본인의 연령대에 맞는 성장도표를 확인하고, 본인의 비만도가 정상·과체중·비만 범위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비만의 발병 원인 및 비만을 예방하는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 규칙적이지 못했던 식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10월 건강간식인 단감 및 흰우유 제공을 통해 계절 과일인 비만예방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교육이 진행된다.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튼튼썩썩 스트레칭'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효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소년 맞춤형 정책 입안 강화

완주군, 청소년의회 의원 등 독일 방문, 아동친화도시 정책 논의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 입안 강화 차원에서 사회 환경조사와 해외 선진지 견학 등 쌍끌이 노력에 나서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지난 22일 오후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박성일 군수와 정철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등과 함께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완주군과 호남통계청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협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완주군은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초·중·고교생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14일 동안 가족과 친구, 건강, 학습, 진로, 안전, 행동 등 49개 항목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은 조사를 완료, 향후 관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완주군은 이번 완료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민선 7기 군정이 지향하는 '출산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입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또 해외 아동친화도시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정책을 논의하는 발걸음도 빨리하고 있다. 정철우 부군수와 이승미 우석대 교수(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 완주군 청소년의회

의원 13명 등 총 17명은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1일 동안 독일 베를린과 카셀, 슈투트가르트, 바일라르인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아동친화도시 해외교류 차원의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의 통합과 화해정책을 논의하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독일 연방정부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등 향후 완주군의 아동·청소년 정책 입안과 개발 등에 활용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의 통합과 화해정책을 논의하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예정이다. 방문단은 독일 연방정부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논의하는 등 향후 완주군의 아동·청소년 정책 입안과 개발 등에 활용한다.

한편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31일 호남지방 통계청과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을 위한 '다운관' 개관식을 가졌다.

노인복지타운 건강지원센터 '다운관' 개관

노인복지관 자치위, 김제시장 감사패 증정

노인종합복지관(과장 노기보)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을 위한 '다운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온주현 시의회의장, 나인권 도의원 및 시의원들과 노인복지타운 위탁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표인 유낙준 주교 등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및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다운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노인복지관 자치위원회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다운관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노인복지관의 규모가 가장 적어 현재 회원 4,000여명에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부족한 프로그램 실을 확보하여 노후설계를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교부금 10억원 및 도 특별교부금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에 착공하였고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준공하였

다. 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센터로 이용하게 될 다운관은 지상2층 규모로 건강관리실 및 체력증진실, 탁구장, 강당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향후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노인복지타운은 20여년 동안 한결같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달려왔다."며 "앞으로 다운관 개관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행복추진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허전 부시장 주재로 2019년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범기관적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각 위원회는 관련 기관 공무원(시, 교육청, 경찰서), 시의원,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변호사 등 청소년 육성 및 학교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석회의는 2019년 청소년 정책 및 학교폭력대책 주요성과 및 2020년 추진방향에 대해 각 기관별



안전 발표와 그에 따른 위원들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제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허전 부시장은 '기출, 비행, 자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번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안전에 대해서는 2020년 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제1호 치매안심마을 선진지 견학 행사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는 23일 김제시 제1호 치매안심마을 월성동 주민과 선진지 견학 및 주민 추억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치매파트너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한 부안군 치매안심마을을 견학하고 내소사와 새만금 33센터를 둘러보며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치매가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였

다. 치매안심마을은 내 가족이나 이웃이 치매를 앓더라도 주위의 도움을 받아 및 주민 추억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치매파트너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정원을 조성한 부안군 치매안심마을을 견학하고 내소사와 새만금 33센터를 둘러보며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19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4일간)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김제 벽골제에서 개최되는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3일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어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는 김제시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박람회로 전시면적이 33%증가됨에 따라 전회보다 45개 업체 증가된 238개 업체, 392개 기종의 농기계 및 농자재가 결집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달려왔다."며 "앞으로 다운관 개관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행복추진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사업 육성 및 수출전략등을 논의하는 농기계 학술 심포지엄, 시설원예분야 정밀농업과 정책방향 세미나, 농업기계 교육훈련 안전 모니터링 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학술 행사를 개최하며, 참관객에게 농기계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농기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농기계 연시장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농업기계박람회를 위해 김제시를 방문해주는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김제시 관광 홍보관과 중소기업 및 기업 유치 홍보관, 김제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귀농귀촌 홍보관을 운영하여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